

지역 소식통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3주년 상생행사 개최

부안군은 부안 로컬푸드 임시 직매장 개장 3주년을 기념하고자 6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 행사에서는 농산물(과채류), 축산물(정육), 계란류(유정란) 일부 할인을 비롯하여 직매장 이용고객에게 관내 우수 농산물(상추, 오이, 애호박 중 1) 무료증정, 우수고객 직매장 포인트 수여 등 3주년을 기념한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하여 직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감사함을 보답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사기간 직매장 입구에서 부안 신활력플러스사업과 연계한 플라마켓을 운영할 예정이다. 직매장 방문객에게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시식 및 판매를 진행하여 판매 실적 증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정읍시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전대, 목적 외 사용, 무단형질변경 등의 제반문제를 파악해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오는 10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건물 721동, 토지 3만 7331필지로, 재산의 활용실태와 추후 이용계획, 활용방안을 조사하고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할 계획이다.

또한 하천부지, 임야, 묘지, 도로 등도 사용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보존의 적합성 등을 분석해 활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조사에 따라 무단경작, 불법 건축물 설치 등 무단 점유한 건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변상금 부과 이후 대부계약, 매각 등 활용 방안 등에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변상금은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120%를 부과하므로, 사용 전 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변상금 납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경제 활력' 504억원 추경 편성

고창군, 미래먹거리 사업의 조기정착·청년지원정책 등 추경예산 편성 논의회 제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지난달 31일 민생경제 활력과 더 큰 도약 고창을 준비하기 위해 본예산 대비 504억원(6.18%)이 증액된 8,67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고창발전의 원동력인 전략사업과 미래먹거리 사업의 조기정착실현, 청년층 고소득 선도모델 육성, 선제적 재난대응, 세계유산 관광도시 자리매김, 민생경제 활력 회복, 생활체육 여건조성 등에 중점을 두었다.

고창군 전략사업과 미래먹거리 사업의 조기정착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는 김치 원료의 수급 조절과 김치 원료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플랫폼 구축사업에 20억원이 투자된다.

또한 △고창(호남권) 드론 통합지원센터 건립 10억5,000만원 △고창 터미널 혁신지구 사업 18억1000만원 △발효식품단지 조성사업 15억원 등을 편성하였다. 청년층 고소득 선도모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청년 농업인의 지역 유입을 도모하고 자립형 영농기

반을 마련하고자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단지조성사업에 4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다.

이외에도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6억2,000만원 △미래형 스마트 큐브 구축사업 1억6,000만원 △소규모 귀농귀촌 기반조성사업 2억원 △고창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1억3,000만원 △활력고창 청년창업 지원사업 9,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선제적 재난대응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는 △선동천 재해복구 및 준설사업 17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6억2,000만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13억6,000만원 △기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37억7,000만원 등을 투자하게 된다.

누리고 즐기는 세계유산 관광도시 자리매김을 위한 사업으로는 △열린관광 환경조성 10억원 △친환경 힐링관광 맨발걷기 좋은길 조성 5억원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 14억3,000만원 △하천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0억원 △노들골 꽃정원 단지 조성 10억원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 5억원 등을 편성했다.

지역상권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사업으로는 △고창사랑상품권 발생지원사업 14억2,000만원 △소상공인 운전자금 출연 2억원 △구도심 먹거리 문화공간 구축 7,000만원 △동네상권 발전소 지원 1억2,000만원 △고창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1억2,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생활체육 여건 조성사업으로는 △고창 스포츠타운 풋살장 조성 13억원 △서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 10억원 △심원면 실내체육관 건립 6억원 △생활밀착형(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장사정 시설개선 및 사면정비 2억2,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제1회 추경안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로 군 재정에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고창발전의 원동력인 전략사업과 군민의 안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예산을 반영하려 노력하였으며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각종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은 지난달 31일 군청 대강당에서 2024년 6월 1일자 정규임용 공무원 58명을 대상으로 '정규임용 임용장 교부식'을 실시했다.

부안군, 정규임용 임용장 교부식

정규임용 공무원 58명 대상

부안군은 지난달 31일 군청 대강당에서 2024년 6월 1일자 정규임용 공무원 58명을 대상으로 '정규임용 임용장 교부식'을 실시했다.

이날 임용장 교부식에는 간부공무원도 참여하여 실무수습 기간을 끝내고

정규임용된 공무원을 축하했으며, 임용장 및 공무원증 수여, 공무원 선서,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권익현 군수는 이날 임용장을 수여하면서 "공직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친절한 마음가짐으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2분기 일자리 성과 공유

정읍시는 지난달 31일 2024년 제2차 정읍시 일자리정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2분기 일자리 사업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업 관련 교육과정을 논의했다.

시의 2분기 일자리정책 추진단 일자리 추진 실적은 8,172명으로 목표 대비 79.5%를 달성했다. 주요 일자리 창출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과 2단계 상생일자리 사업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연계 교육과정도 점검했다. 추진단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전산세무·회계 등 11개 과정 100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구직자

는 전문가자격증을 취득하고, 기업체는 인력 채용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일자리 확대, 외국인 근로자 일자리, 복지 통합 지원 방안에 대한 토의를 통해 사무보조, 환경정비 위주의 공공일자리 사업을 다양화해 계층별(여성, 청년, 중장년, 노년) 일자리 지원을 유도하고, 외국인 근로자 복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일자리정책 추진단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라 공공일자리 확대, 외국인 근로자 통합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아 고부농민봉기를 재조명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고부농민봉기는 동학농민혁명의 첫 불꽃"

정읍시, 국회서 고부농민봉기 재조명 학술대회 개최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아 혁명의 시작인 고부농민봉기를 재조명하고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학술대회를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전문연구 학회인 동학학회와 함께 개최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였다. 학술대회에는 윤준병·임오경·김준혁 국회의원, 동학농민혁명 연구자 및 유족, 동학 단체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연구자들의 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학술대회는 김삼웅 前특별기념관장의 '동학농민혁명에서 고부봉기가 가지는 의의'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으로 시작했다. 김 관장은 고부농민봉기의 내용이 특별법 개정 및 한국사 검정 교과서에 온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발표는 조광환 동학역사문화연구소장의 '사발통문과 고부봉기의 상관성 연구'로, 사발통문 결의 내용은 고부농민봉기가 민란이 아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혁명임을 증명했다. 이어 '고부동학농민혁명은 봉

기인가 기포인가'라는 주제로 동의대학교 성강현 교수의 제2발표가 이어졌다. 성 교수는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인 것을 논리적으로 밝혔다. 제3발표는 경기대학교 조극훈 교수의 '동학농민혁명과 고부봉기의 단절성과 연계성 연구'가 이어졌다.

조 교수는 고부농민봉기는 동학농민혁명 전개에 있어 연속성을 가지며 실질적인 시작점임을 심도 있게 연구했다. 네 번째 발표로 경희대학교 김영진 교수의 '고부봉기에 관한 기존 연구 성과와 과제'가 진행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농민들과 풍년기원 모내기 구슬땀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역 농민들과 함께 풍년농사를 기원하며 모내기를 실시했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임정호 고창군의 회 군의장과 군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오전 고수면 우평리 모내기 현장을 찾아 직접 이앙기에 올라 모내기를 실시했다.

이날 모내기를 실시한 농업인 류연상(63)씨는 우평리 684번지 일원 10ha 규모의 논에 신동진벼를 심었으며 오는 10월경 수확할 예정이다.

고창군은 6월 한 달간 본격적인 모

내기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벼농사 필수 영농자재인 벼 못자리용 상토와 제초용 우렁이, 벼 육묘장, 유기질비료 등 지원사업을 추진해 적기 영농을 지원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쌀 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의 여건 속에서도 고품질 쌀 생산에 힘써주시는 고창군 농업인에게 감사하며, 모든 농업인의 염원이 모여 올해 고창 농민 모두가 풍년을 맞보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